

베니스 비엔날레: 예술의 책임과 역할을 되묻는 메아림, 예술 만세(Viva Arte Viva) 문화여행

2017. 10. 10. 23:40

<http://blog.naver.com/asiaculturecenter/221114047516>



유럽 최대의 미술 축제 카셀 도큐멘타,
베니스 비엔날레 그리고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를 통해 본 현대미술의 의의

제3탄 베니스 비엔날레 : 예술의 책임과 역할을 되묻는 메아림, 예술 만세(Viva Arte Viva)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는 5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 예술 만세(Viva Arte Viva)는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큐레이터 크리스틴 마셀의 기치로 기존 비엔날레의 정치적 이슈에서 벗어나 좀 더 예술만을 위한 자유로운 표현을 표방합니다. 베니스 도시 곳곳에 자리한 전시들은 놀라운 수작들로 본 전시에 들어가기 전부터 방문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본 기사는 세 가지 파트: 베니스 도시 구석구석에 자리한 명작들,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 작가들,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로 비엔날레를 되짚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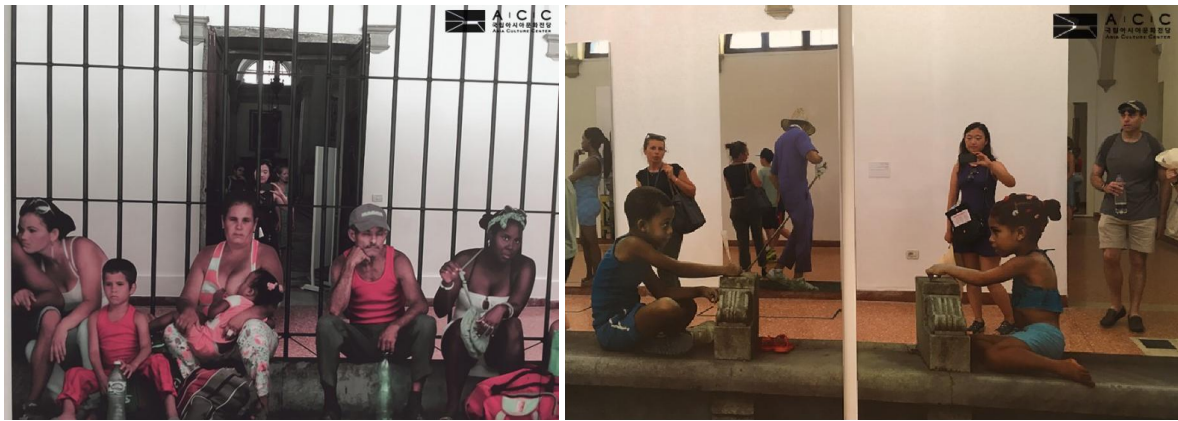
베니스 도시 구석구석에 자리한 명작들

일상적 오브제를 거부하는 예술 장르인 아트포베라(Art Povera)로 유명한 이탈리아 작가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의(Michelangelo Pistoletto) 'One and One Makes Three' 설치 작품은 최근 1층 전체를 전시장으로 개조한 베니스 산조르조마조레 대성당(Basilica di San Giorgio Maggiore)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의 작품 구현에 있어 거울은 주제로 쓰이며 인류의 삶과 성찰을 표현하였습니다. 'Suspended Perimeter- Love Difference' 설치작은 거울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시야를 확장시킴과 동시에 내면을 성찰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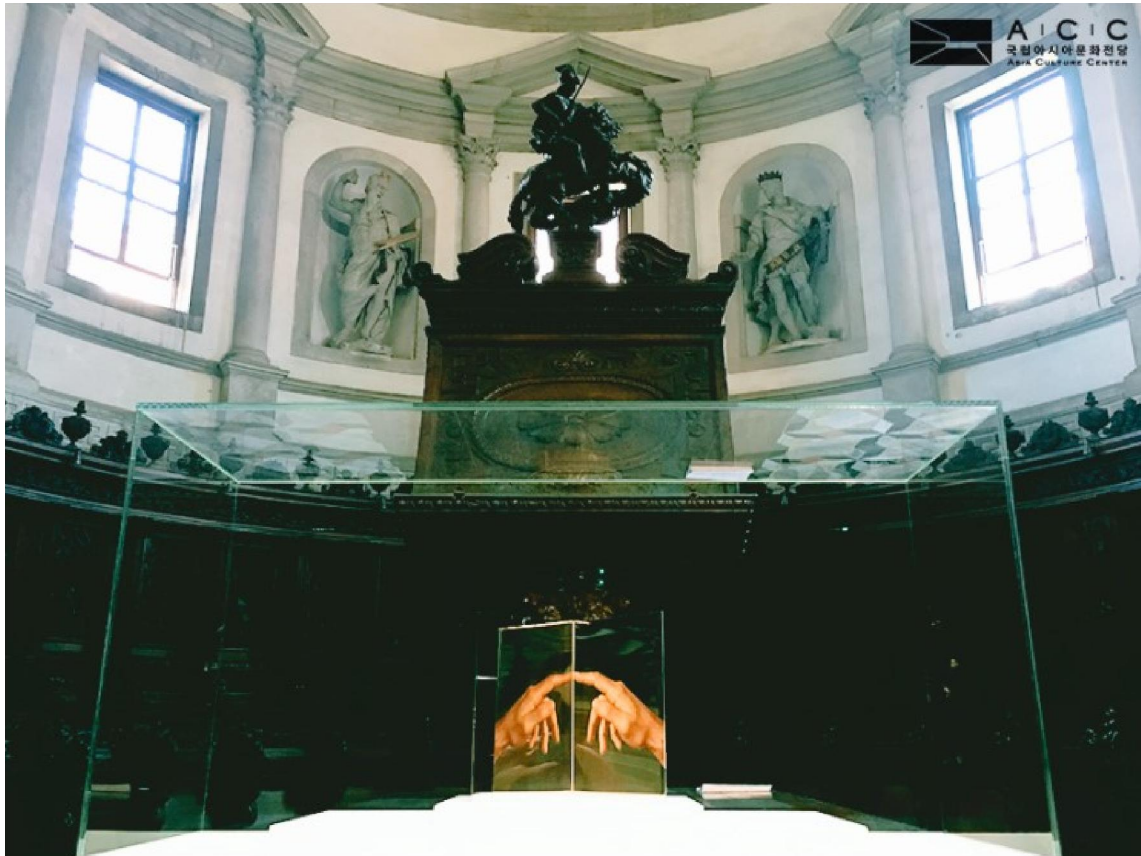


Michelangelo Pistoletto, Suspended Perimeter- Love Difference, 2002. 전시 전경

성당 입구를 지나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면 벽 전면에 거울 표면에 부착된 쿠바인들의 군상이 줄을 이룹니다. 필자를 포함한 전시 관람객들은 거울을 통해 타자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동시에 응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La Habana, People waiting, 2015.



마지막 방에 들어서 마주한 거울은 아담의 창조를 위해 최초로 생명을 불어넣은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아담의 창조처럼 거울 통해 인간이 인간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예술로써 되묻고 있는듯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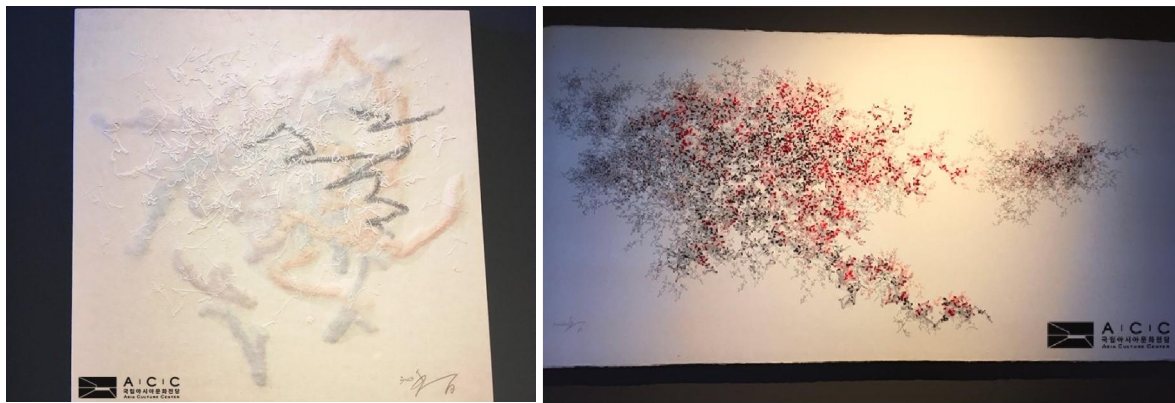


James Lee Byars, The Golden Tower, 2017

이외 베니스 곳곳에 자리잡은 작품들 중에서도 단연 압권은 제임스 리 바이알스의 황금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 바이알은 1976년부터 65 피트가 넘는 도금 작품을 구상하였지만 이번 비엔날레에서 전체 완성작이 현실로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설치작은 이탈리아 베니스를 대표하는 아카데미아 미술관(Gallerie dell'Accademia)과 캠프 산 비오(Campo San Vio) 다리 옆에 위치해 명실상부 이번 해 비엔날레의 대표작으로 자리합니다. 황금탑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이 중 하나가 해를 빼어닦은 하늘로의 승천 또는 신성스러움을 표방하는데 있습니다.

두각들 나타내는 한국 작가들

유럽문화센터(European Culture Center)의 방대한 전시 Open Borders(2017년 5월 13일-11월26일)는 베니스 비엔날레를 맞아 약 200여명의 젊은 작가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작품은 한국 작가 심향의 자수 작품입니다. 한뼘 한뼘 공을 들어 제작한 세심한 바늘땀은 마치 살아움직이는 생명체 세포들을 보는 듯합니다. 언뜻 보일 듯 안보이는 하지만 모두 경교하게 이어진 객체들은 살아있는 우주 공간이면서 동시에 함께 삶을 영유하는 인류를 이미지를 구현한듯합니다. 동양화와 서예를 공부한 심향작가는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이 열리는 팔라초 모라 3층에서 현대음악 그룹 empty note의 오영지 소리꾼과 퍼포먼스를 열기도 했습니다.



Simhyang, Starfield series, 2017.

또한 갤러리 현대에서는 지난 5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원로작가 이승택 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전시는 베니스를 찾는 전세계 방문객들에게 한국 아방가르드 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 사료됩니다. 건물 전체를 대어한 갤러리 전시는 한 층 한층 작가의 시대별 작품 발전과정을 잘 조명해주었습니다. 1층은 전위 미술을 표방한 거꾸로된 자화상에서부터 시작해 분신 퍼포먼스 그리고 한국인에게 익숙한 돛자리 틀, 붓에 매달은 고드렛 돌 작품들로 층을 메웠습니다.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 갤러리에도 상설 전시되고 있는 고드렛 돌 설치 작품을 보던데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가치를 다시 느꼈습니다.



Seung-Taek Lee, 고드렛돌(Stones cords and wood sticks), 1958.



Seung-Taek Lee, nontitle, 1978-79.

베니스 비엔날레 본 전시

베니스 비엔날레는 아스날레(Arsenale)의 주제관과 지아르디니(Giardini) 국가관으로 크게 나뉩니다. 먼저 큐레이터가 선별한 아스날레 주제관은 '예술 만세'라는 주제에 부합한 예술의 여러 가치들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작가들을 통해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스날레(Arsenale)의 주제관



Rasheed Araeen, Zero to Infinity in Venice

라시드 아레인의 작품은 다양한 색깔의 큐브 시리즈 작품들로 제작자와 참여자의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관객들은 전시장에서 작품을 만지고 이동하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만들수 있습니다. Third Text 인문 사회 잡지의 창간자이기도 한 작가는 영국계 파키스탄인으로써 예술의 다양성과 위계질서 허물기를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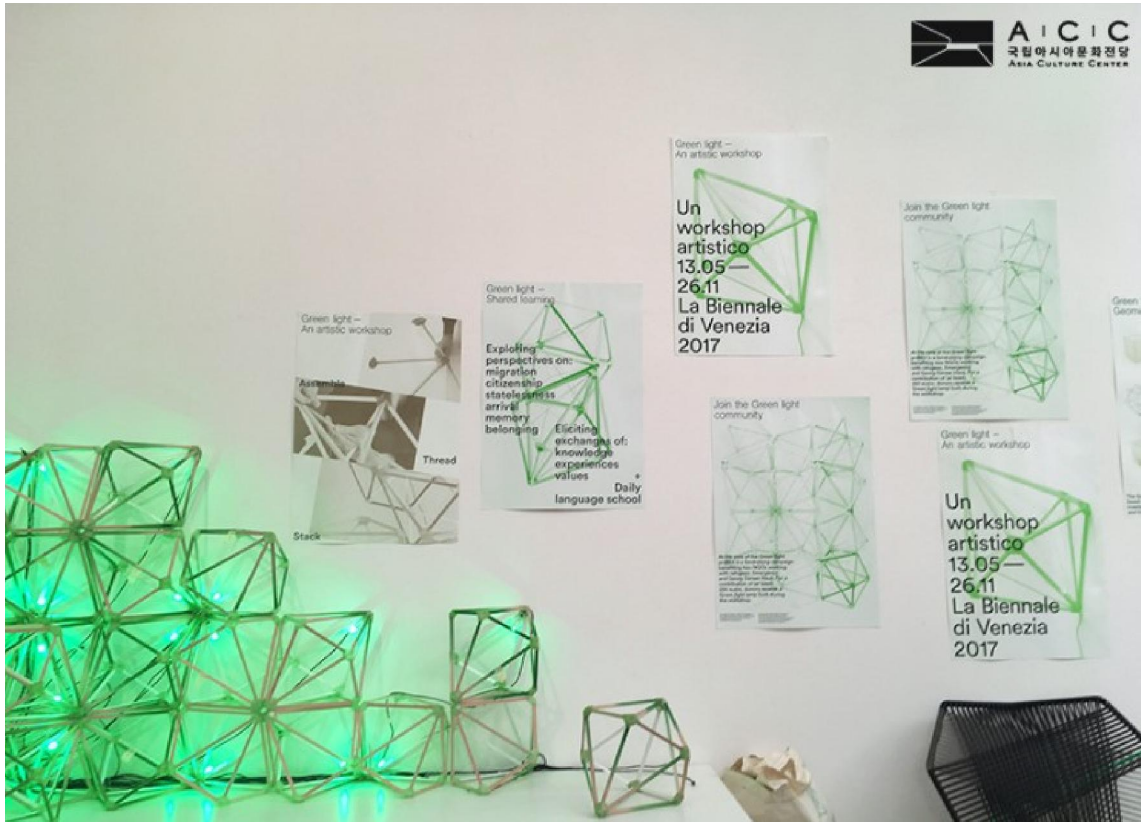


Koki Tanaka, Of Walking in Unknown, 2017

작가 다나카 코키는 최근 작품 A Piano Played by 5 Pianists at Once (2012), A Poem Written By 5 Poets At Once (2013) 등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 다른 배경,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협업해나갈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다섯 피아니스트들의 한 손만을 이용한 연주곡 만들기, 다섯 시인들이 동시에 만들어내는 한 편의 시는 현대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집니다.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작가는 삶의 불확정성을 탐구하며 우리가 간과해왔던 현실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에 제시합니다. 작가의 비디오는 그의 고향인 도쿄에서 근교 원자력 공장까지의 여정을 녹화한 것입니다. 약 20시간4일이 걸린 여정은 2011년에 있었던 원전 사고에 대한 이야기이고 합니다. 작가 자신의 집에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걷는 여정을 통해 몸으로 체득한 경험을 생생히 예술 작품으로써 전합니다. 거리와는 상관 없이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원폭 피해를 간접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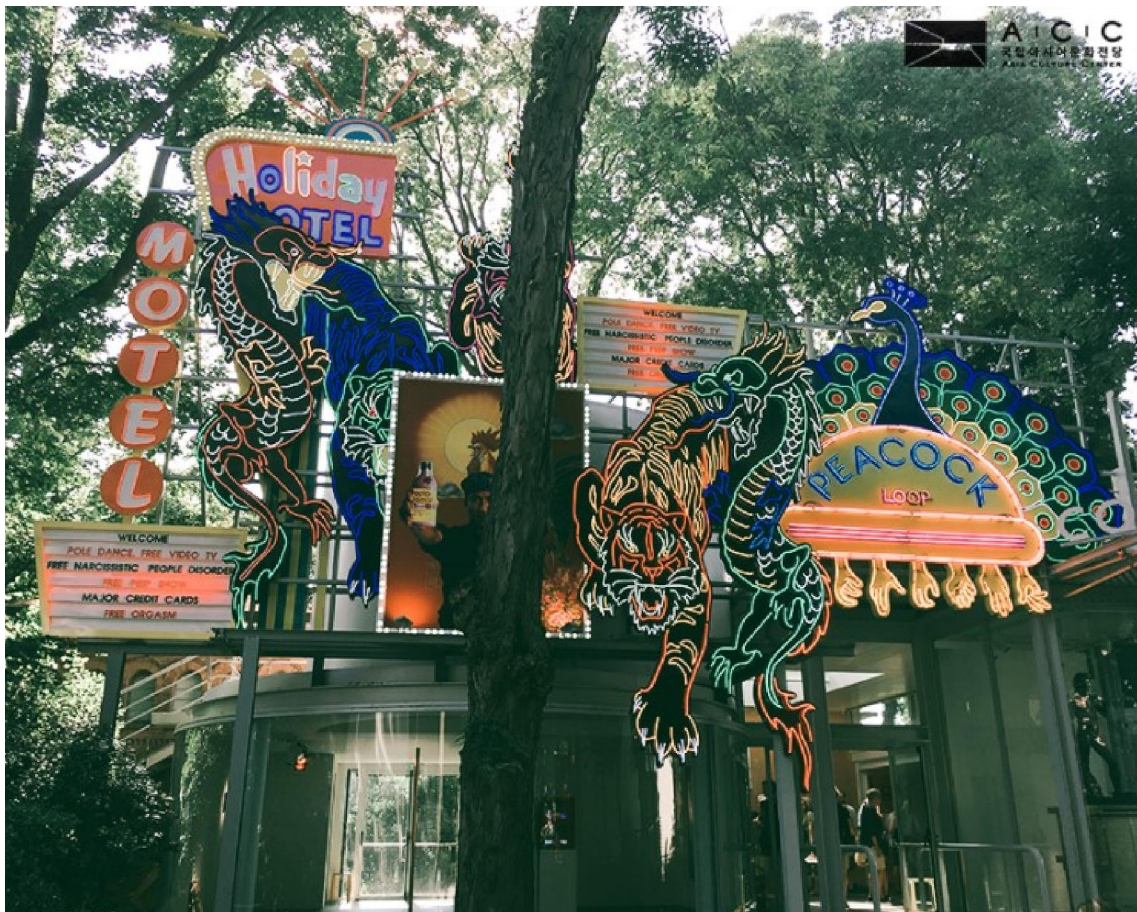
세계적인 작가 올리퍼 올리야슨(Olafur Eliasson)의 그린 Green Light 워크숍은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도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강제적 혹은 자발적 이주, 이민 문제를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작가는 난민, 망명 신청자 그리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의 예술 워크숍을 통해 이전에는 없었던 창의적 발안을 언어 교육, 세미나 작가 참여, 영화 이벤트, 초록 불 이벤트를 통해 '예술 만세' 부합하는 취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Olafur Eliasson, the green light workshop, 2017

지아르디니(Giardin) 국가관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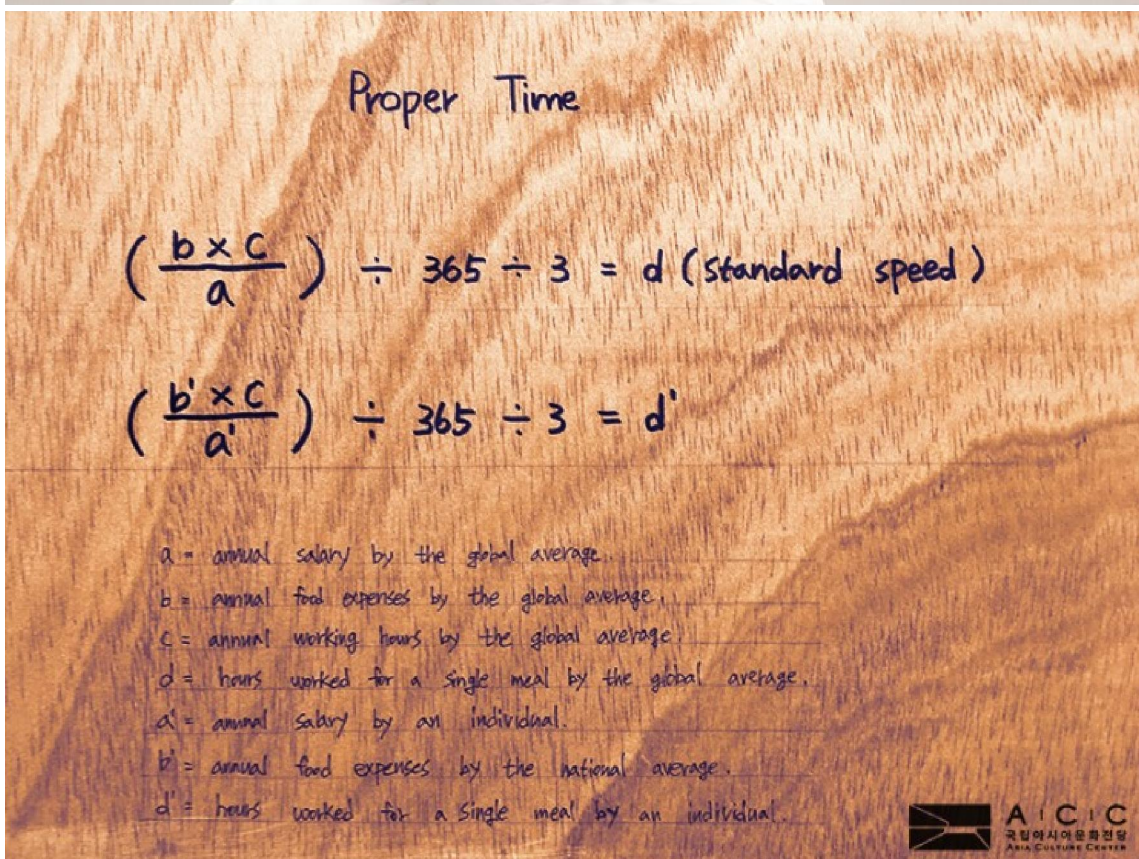
Korea Pavilion 전경



Cody Choi, The Thinker, 1996

이번 해 한국관 전시는 이대형 큐레이터의 Counterbalance: The Stone and the Mountain 주제 감독하에 작가 코디최와 이완 작가의 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코디최 작가의 생각하는 사람 작품은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화제인 헵타분홍빛의 펩토비스몰(Pepto-bismol) 3만병과 두루마리 화장지를 섞어 만든 작품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충돌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그리고 한국의 급격한 세계화 및 서구화를 몸소 경험한 작가의 문화 충돌이 소화 불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작가의 고민은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뒤덮인 화려한 네온사인에서도 나타납니다. 아시아 도시의 어느 곳에서 본 듯한 익명의 간판들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써 다시 한번 아시아 국가들이 빠른 시간안에 받아들인 서구 문명에서 비롯된 문화 혼종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이완 작가의 고유시(Proper Time)는 작가 작품의 연장선상으로써 사회 시스템과 권력, 자본주의 등 불가항력적 요소가 어떻게 개인의 일상과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탐구입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668개의 시계는 작가가 직접 인터뷰한 세계인이 각자의 직접,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일년에 시간당 노동의 대가로 얼마가 되는 한끼 식사를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공식에 대한 결과는 각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속도로 결과지어지는데 있습니다. 둘러싼 시계 가운데 위치한 익명의 가족상은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며 불공정한 사람들의 삶을 뒤로 겹보기의 평등만을 강요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Lee Wan, Proper Time- Through the Dream Revolve with the Moon, 2017.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전시관은 개최국 당계 입구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커다란 입구에 들어서 보이는 전시장은 알 수 없는 불쾌한 냄새와 다소 충격적인 사람 형상의 유골들로 관람객들로 하여금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전시 주제는 Il Mondo Magico (The Magic World)로써 큐레이터의 감독아래 작가 Cecilia Alemani Roberto Cuoghi, Adelita Husni-Bey 그리고 Giorgio Andreotta Calo의 작품들로 선보입니다.

전시 주제는 종교적 마법을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 상상력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 어떻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번째 주제 'The imitation of Christ'의 작가Roberto Cuoghi은 예수의 형상을 실현하는데 있어 하나의 공장을 설계합니다. 터널 공장을 지나 오븐을 거친 뒤틀린 육체 형상은 부패조차 멈춘듯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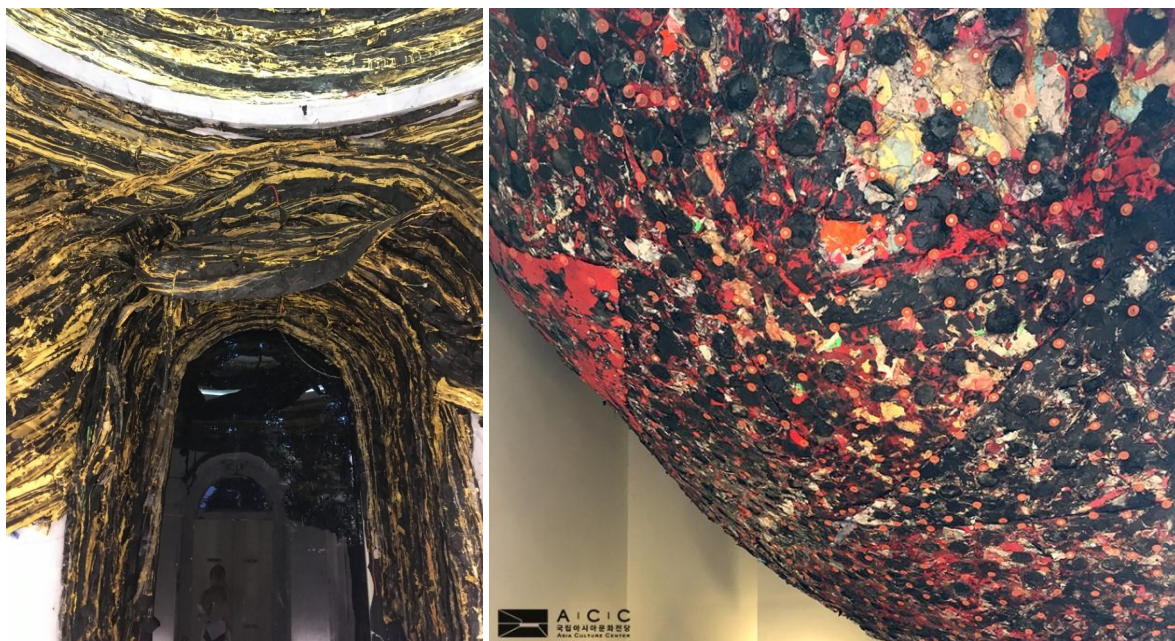


Roberto Cuoghi, The Imitation of Christ, one of the statues of Christ after the initial manufacturing process. 2017.

Adelita Husni-Bey의 사람과 지구의 관계를 다룬 영상작품을 지나 전혀 다른 전시장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던Giorgio Andreotta Calo의 설치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맨 윗 층에 자리하고 있어 긴 계단을 이용해 도달한 곳은 지붕과 바닥이 맞닿은 오묘하고도 진기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전시장 공간의 어두움을 극도로 활용한 설치작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모든 곳을 보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이탈리아관은 인간의 상상력을 구현함에 있어 어두움을 공통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Giorgio Andreotta Calò, senza titolo (la fine de mondo), 2017.



Mark Bradford, Spoiled foot (detail), 2016.

이외에도 압도적인 설치작품으로 주목을 받은 미국관의 마크 브래드퍼드(Mark Bradford)는 콜라주와 혼합 매체를 사용하여 오늘날의 다양한 문화를 표현합니다. 전시장 공간의 70%를 차지하며 잊지 못할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국 작가 필리다 바로(Phyllida Barlow) 또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영국관 천장을 뚫는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Phyllida Barlow, folly, 2017.

베니스 비엔날레 주재관과 국가관을 구경하며 얻는 소감은 예술의 다양함과 그 무한한 가치입니다. 큐레이터의 예술만을 위한 예술 만세의 기치는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잘 표현된 듯 하지만 역시 예술의 역할을 돌아보는데 정치와 사회를 떼어놓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1895년부터 오랜 역사를 자랑해온 베니스 비엔날레의 명맥은 이렇듯 예술을 다양한 위치의 연장선상에서 놓고 바라보고자 하는 혁신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ACC 기자단 장보람(취재) 윤이나(타이틀 디자인)